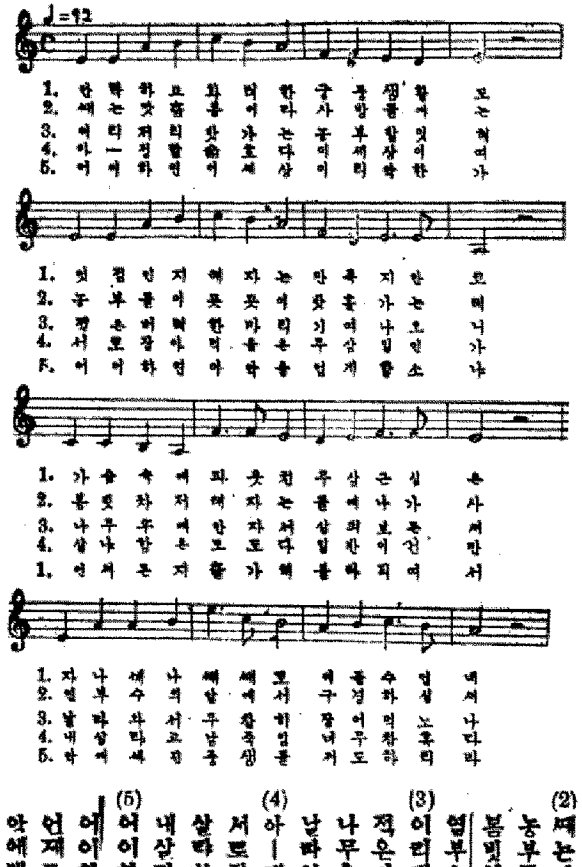
讚佛歌

第三篇 第十七曲 閻浮樹下의 늣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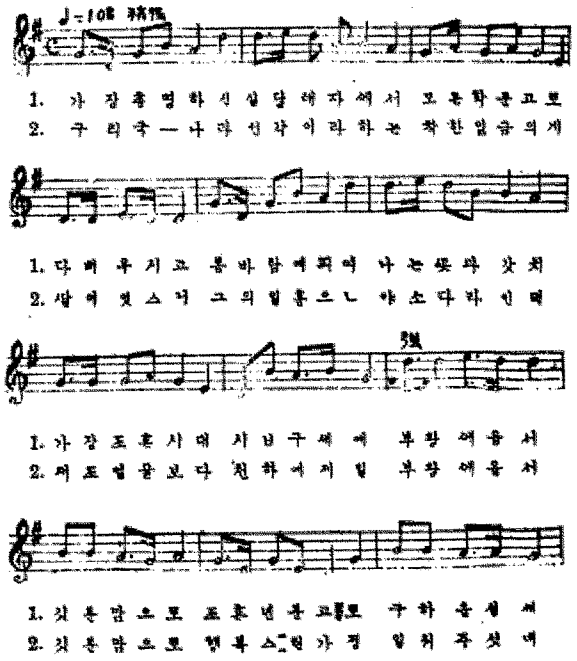
曹學乳



(1) 안락하고화려한 궁중생활도
엇갭인지태자는 만족지안코
가슴속에파부친 부상근심은
자나깨나쌔쌔로 이줄수업네
(2) 쌔는마음틈이라 사방들에는
농부들이꽃곳이 밭흘가는데
봄빗차저태자는 들에나가사
염부수회알에서 구경하실새
(3) 이리저리밧가는 농부발밋헤
적은버레한마리 긔여나오니
나무우에안저서 살피보든새
날파와서부참히 잡어먹노나
(4) 아—잿말슴호다 이세상이여
서로잡아먹음은 부상일인가
살라함은모도다 일반이전만
내살랴고남죽임 넘어찬욕다
(5) 어이하면이세상 이리악한가
에이하면이악을 엇게할소냐
언제든지출가해 불락되여서
악에색진중생들 제도하리라

讚佛歌

第十八曲 善覺王女



(1) 가장총명하신실달태자세서
모든학문고로다배우시고
볼바람에피여나는옷파가치
가장조혼시대십구세에
부왕세움서깃분맘으로
조혼연분고로구하옵실세
(1) 구리국나라신각이라하는
착한임금의제일이잇스니
그의일홈은아수다라인데
재조얼굴보다천하에데일
부왕세움서깃분맘으로
행복스런가정일워주셧네